

광주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 획득

최초 인증후 4년간 아동정책 성과

5개 자치구 전지역 '아동친화도시'

아동친화정책 선도 도시 자리매김

광주시가 6개 광역시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을 획득하는 등 아동친화정책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시를 비롯해 5개 자치구 모두 인증을 받아 의미를 더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을 획득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 체계를 갖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은 '최초 인증' 후 4년간 아동 관련 정책에서 성과를 낸 지역에 부여되는 것으로 기준의 최초 인증이나 단순 인증 간과는 차별화되는 더 높은 수준의 인증이다.

앞서 광주시는 2019년 12월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아동 권리 보장과 안전한 아동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정책과 제도를 지속 추진해왔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아동 참여·권리 교육 ▲행정서비스의 효과적 조정 ▲



광주시가 전국 6개 광역시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을 획득했다. 상위인증은 최초 인증후 4년간 아동 관련 정책 성과를 낸 지역에 부여되는 것이다. 특히 광주는 5개 자치구 모두 인증을 받아 의미를 더했다.

〈광주시 제공〉

아동친화적 공간 조성 등 5대 영역 15개 세부 기준을 바탕으로 현황, 계획, 이행 실적 전반을 종합 평가했다.

이번 상위인증 유효 기간은 오는 2029년 6월까지 4년이다.

광주시는 아동권리 실현과 정책 제도화, 아동 참여 보장, 아동권리 교육, 음보즈파운 운영 등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물론 제도적으로 체계화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2021년부터 아동의회를 청소년의회와 분리해 저연령 아동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전국

광역 단위 최초로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청소년의회를 운영하는 등 아동 참여 기반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실제 아동의회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69 건의 정책 중 약 68%인 47건이 시정에 반영됐으며 아동이 제안한 사업이 실제 예산에 반영되는 참여예산제 사업도 총 17건이 추진됐다.

광주시는 또 아동권리강사 양성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권리교육 체계화와 함께 아동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생활 밀착형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손자녀돌보미'와 '초등학부모 10

시 출근제'를 시행하고 아간·휴일 소아진료 확대, 삼삼오오 이웃돌봄, 출산맘 나눔가게, 광주형 G-패스 교통비 지원, 아이키움 플랫폼 운영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아동친화 정책을 펼쳤다.

광주시는 이번 상위인증을 계기로 '아동시민의 권리를 모든 시민이 존중하고 실현하는 기회도시 광주'라는 아동친화도시 비전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교육청·경찰청 등과 협력을 통해 '광주시 유

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2026-2029년)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광역자치단체 아동친화정책 선도 모델로서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기정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는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라며 "아동의 권리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내일이 빛나는 아동친화도시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국제농업박람회 사전예매 30% 할인

일반권 7천원·청소년권 6천원 등

행사장 사용 페이백 쿠폰도 제공

전남 관광지 연계 프로그램 운영

(제) 전남도 국제농업박람회는 23일 "2025 국제농업박람회 사전예매 입장권을 인터파크와 네이버를 통해 최대 30% 할인 판매하고 행사장

에서 사용할 수 있는 3천원 상당의 페이백 쿠폰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5 국제농업박람회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나주 산포면 전남농업기술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AI와 함께하는 농업혁신, 생명 키우는 K-농업'을 주제로 미래 농업 비전과 혁신 기술을 선보인다.

박람회에는 25개 국가 380여개 기업·단체가 참여해 농업 관련 혁신 기술과 혁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우수 농산물 수출 상담과 다양한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온라인 구매는 네이버나 인터파크에 국제농업박람회를 검색해 '예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간단하게 구입할 수 있다.

사전예매 가격은 일반권 7천원(현장 판매 1만원), 청소년권 6천원(7천원), 어린이권 2천원(3천원)으로 최대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사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3천원 상당의 쿠폰(어린이 제외)도 제공된다.

또한 관람객의 전남 여행 활성화를 위해 전남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입장권 할인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박람회 참여와 전남의 다양한 관광 명소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관수 전남도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장은 "입장권 사전예매를 통해 보다 많은 관람객이 혜택을 누리며 박람회를 즐기길 바란다"며 "박람회가 농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재생에너지 제도 개선·기후에너지부 유치 건의

전남도-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 간담회

에너지 3법 정비·주민 참여 지원 등 요청

전남도는 지역 재생에너지 정책과 현안과제 등을 위해 목포를 방문한 국회입법조사처와의 간담회에서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기후에너지부 전남 유치를 건의했다. (사진)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회에서는 최근 지역 재생에너지 정책과 현안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이진수 입법정책자문위원장, 자문위원과 입법조사관 등 9명이 목포신항만을 방문했다.

전남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전국 해상풍력 발전 허가 용량의 61%인 187GW를 확보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30GW 보급을 목표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남특별자치도법·영농형태양광 특별법 제정, 재생에너지 주민 참여 제도 개선 등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만큼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에너지 3법 정비, 지방분산형 전원체계 구축, 주민 참여형 모델 마련 등이 입법과 정책 설계에 반영되도록 국회입법조사처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며 "기후에너지부와 같은 전담 조직이 향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신설된다면 에너지 수도 전남에 유치되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AI데이터센

터, 재생에너지자는 국정과제이자 전남이 추진하는 핵심 사업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업들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다부처와 연관된 사업이므로 통합적으로 고민하고 입법·제도화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공공주도·민간협력·지역사생 등 3대 원칙에 따라 배후향만 기반 조성, 전력계통 연계, 주민 참여 모델, 전문인력 양성 등 해상풍력 핵심 인프라 구축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김재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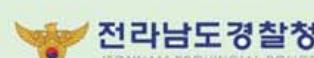
꼭 기억해야 할 자전거 안전 수칙



우리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자전거 타기!

기본 수칙만 알아도,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바퀴로 힘차게 달리는 안전한 생활, 우리 함께해요!



1 안전한 자전거 주행 기본 수칙

① 자전거는 한 줄로!



② 우회전 차량에 주의!



③ 횡단보도는 두 번으로!



2 교차로 좌회전 주행 방법

① 차량 신호로 좌회전 불가



② 꼭 기억하세요! 2번의 직진을 통한 좌회전 방법



① 직진 후 모서리에서 기다리다가 다시 ② 직진

*내려서 횡단보도로 끌고 건너면 더 안전해요!